비나텍, 완주에 860억원 투자 확정

전북도-완주군-비나텍, 투자협약…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단에 공장 신설 · 120여명 신규 채용

전북도와 완주군, 비나텍(주)은 도청 회의실에서 송하진 도지사, 박성일 완주군수, 성도경 비나텍(주)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비나텍㈜은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에 860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설하고, 전북도와 완주군은 기업의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행정적 지원 및 인허가 진행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비나텍㈜은 지난 1999년 유통업으로 출발해 2004년 친환경에너지 저장장치인 슈퍼 커패시터 분야로 사업을 확대, 연료전지를 전문으로 생산 제조하는 기업이다.

특히, 비나텍㈜은 탄소 관련 최고의 기술력과 성장성을 인정받아 지난 9월 도내 탄소기업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으로 2010년 경기 군포에서 도내로 이전한 뒤 전북 탄소기업의 성장을 이끌어왔다.

전북도로 이전한 뒤 비나텍㈜은 전북도의 지원으로 연구개발에 집중하면서 생산성을 높인 결과 일반 커패시터보다 에너지 저장용량이 100만배 이상 큰 슈퍼 커패시터를 개발·생산하게 됐다.

이러한 높은 기술력은 해외에서도 인정받아 세계적인 자동차 제조사인 벤츠도 비나텍㈜이 생산하는 슈퍼 커패시터를 쓰고 있다.

비나텍㈜은 기술력을 높임과 동시에 해외 시장 개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 결과 지난해 대부분의 생산 제품을 해외 유수의 기업에 납품하는 등 그 수출액 비중도 높이며, 글로벌 중형 슈퍼 커패시터 시장 세계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28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비나텍(주) 투자협약 체결식에 송하진 도지사, 박성일 완주군수, 성도경 비나텍(주)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체결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비나텍은 최근 연료전지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공격적인 투자와 사업규모 확장을 계획하고,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에 신규투자를 결정했다.

이번 투자협약은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산업용지 5만5,741㎡ 면적에 2024년까지 860억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신규 생산공장을 설립하고, 120여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에 투자를 결정한 이유로 현재 본사가 위치한 전주시 팔복동과 인접해있어 관리가 용이하고, 완주테크노밸리 제1일반산단·과학산단·완주산단과 연계된 핵심산단으로 다수의 유망한 관련 기업이 입주해있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호남고속도로 익산IC가 근접해 있어 편리한 교통망을 장점으로 꼽았다.

비나텍 성도경 대표는 "전북도와 완주군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투자 인센티브 지원 방안 마련 등 끈질긴 설득과 노력이 완주군 투자로 이어졌다"고 밝히고 "이번 증설투자는 비나텍의 질적·양적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며, 완주군과 전북도의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성일 완주군수는 "비나텍은 이미 대한민국 최고의 소부장 기업이며, 이제 완주군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비나텍㈜이 지금까지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제품, 신기술 개발에 더욱 매진해 국내를 넘어 세계일류기업으로 성장하여 주기를 바란다"며 "이번 투자로 우리 지역에 질 높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전북 경제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호상 기자

저소득계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올해 25억원 예산 투입해 773호 노후주택 개보수 추진

전북도와 시·군이 저소득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희망의 집 고쳐주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전국 최초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희망의 집 고쳐주기'는 민생안정 시책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등이 거주하는 노후 불량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400만원 범위에서 집을 고쳐주는 사업이다.

지붕과 화장실, 부엌 개량, 보일러 수리, 창호, 도배 장판 등 주거 안정과 함께 에너지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773호의 노후주택 개보수를 추진했다.

2006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온 따뜻한 손길은 총 2만5,385가구에 830억4,000만원을 투입해 어려운 이웃들이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전북도 노형수 주택건축과장은 "저소득계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발효식품산업 경쟁력↑

내년도 '종균활용 발효식품 산업지원사업'에 도내 5개소
한국형 유용균주 공급기관으로 순창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선정

전북도가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한 발효식품의 메카로 거듭났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한 2021년도 '종균활용 발효식품 산업지원사업'에 도내 5개소가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도내에는 ▲정읍시 (주)현미원 '현미흑초' ▲순창군 토당식품영농조합법인 '딸기 고추장' ▲(주)기픈샘 '우리밀 고추장' ▲고창군 ㈜허브피아 '천연발효 허브식초' ▲고창복분자마을 진농식품 '종균을 활용한 건강 푸딩' 등 5개소가 선정돼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종균활용 발효식품 산업지원사업은 종균활용 발효식품 산업의 활성화와 표준화를 위해 농식품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종균 공급기관 1개소와 제조업체 25개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1차에 18개 업체가 선정됐다.

선정된 식품제조업체는 사업비 4,0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받아 맞춤형 유용균주로 장류와 식초류를 생산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전국 18개 식품업체는 종균 보급기관으로 지정된 순창 소재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으로부터 한국형 유용균주(장류, 식초류)를 보급받아 제품을 개발 생산하게 된다.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순창군 소재)은 지난 2015년 산업부로부터 '한국형 유용균주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돼 5년간 국비를 포함해 160억원을 지원받아 유용균주 산업화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1992년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며, 세계 각국은 미래생명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부와 전북도·순창군이 추진한 사업으로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은 국내 유일의 먹는 미생물을 보유한 기관으로 한국형 유용균주 35종류, 토착미생물 DB 2,300종류를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유용종균 원료와 반제품 생산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한 국비 사업인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가 완공되면 표준화된 종균을 더욱 활발히 보급할 수 있어 전북도 발효식품산업 경쟁력은 물론, 우리나라 발효식품의 성지로 더욱 그 위상이 굳어질 전망이다.

박우석 전북도 농식품산업과장은 "이번 공모사업은 한국형 유용균주 확보 보급기관과 유용균주로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발효식품 제조업체를 연결해 유용균주 보급·상품화를 통한 발효식품의 표준화를 실현하는 사업"이라며 "삼락농정의 결실이 나타나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식품 영업자 위생 교육 이수 기간 3개월 연장

전북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결정에 따라, 올해 식품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 정기교육 이수 기간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도 유예한다고 밝혔다.

식품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본교육 3시간, 신규교육 6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집합 또는 온라인으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불가한 상황과 영업중단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기교육 유예가 결정됐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농축산식품분야 표창 잇따라

전북도 농정시책에 대한 수상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도는 민관협치인 삼락농정을 도정의 핵심정책으로 삼고 각종 사업과 시책을 추진한 공무원과 농업인들이 잇따라 수상하며,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의 농정시책 유공, 농촌지역개발 유공, 식량산업 발전 유공, 축산정책 유공 등 농축산업 전 분야 평가에서 산업훈장 1점, 대통령상 4점, 국무총리 4점, 장관 표창 134점 등 총 144점의 표창을 전북 농업·농촌 발전에 노력한 공무원과 농업인들이 수상했다.

특히, 도의 식량산업 정책을 추진하는 농산유통과에서 2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친환경 농업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영농조합법인 오가닉팜 대표가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여기에 힘입어 전북도는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산지유통혁신조직 지원 시범사업에 전국 최다 4개소 선정과 2020년 원예산업 종합계획 이행 실적 연차평가 전국 1위, 2020년 산지 유통조직 운영실적 평가 ㈜농산 1위(민간분야), 전주조공법인 2위(농협분야)를 차지했다.

또한, 도는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지자체 방역 우수 사례 특별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고, 임실군은 농업생산기반 시책 유공기관 평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밖에도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공모 선정, 금강Ⅲ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 예타 통과 및 2021년 국비 확보 등 농축산식품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성과는 민관협치인 삼락농정위원회를 통한 핵심시책을 추진한 결실이라고 생각한다"며 "내년에도 농업인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 지원해 농민이 행복한 농촌, 사람찾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도와 시·군이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모집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우 석 대 학 교 평생교육원 환영

스피치 · 긴장해소 · 웃음치료(힐링) · 면접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옥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옥입니다.

(김양옥 교수)

▷ 전담교수 주요경력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담교수 역임
○스피치자격시험 검정위원장
○한국스피치 · 웅변협회 전북회장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V, TBN 출연 및 강의자
○스피치 칼럼리스트 ○전주매일 부사장
○저서 "365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말,말" "스피치 노하우" 등

〈전북도내 각 지역별 모집〉

학교별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자격증) 〈주, 야간〉	전주, 임실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주, 야간〉	전주, 완주, 진안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자격증) 〈주, 야간〉	군산, 부안, 서천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 고급, 자격증) (스피치, 긴장해소, 웃음치료 등) 〈주, 야간〉	정읍, 고창
익산스피치(원광보건대)	스피치&웃음치료(야, 주간반)(웃음자격증)	익산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치료(야)(웃음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치료(웃음자격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 야)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